



기 타

##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들

### 환경 벤처사업가 한정 광

버려진 쓰레기로 황금을 만드는 환경벤처사업가.

폐섬유를 가공하여 산업용 신소재 개발 기술로 산업특허

20개를 따낸 진정한 기술자이자 환경사랑의 벤처인.

### 해양동물연구가 한 문 교

한국의 박제 기술을 20년 앞당기고 전세계 수준으로

이끈 박제기술의 개척자. 사라진 희귀동물을 비롯하여

3만여 점의 해양동물을 소장하고 있는 해양동물연구소 소장.

환경 벤처사업가 한정광



# 환경산업의 불모지에 키워내는 녹색 희망

리텍의 재생산업 기술은 기술이라기 보다는 어찌보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인간이 한번 쓰면 다시 생활 속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불연속 소비의 시

구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는 영원한 소멸이

대를 살면서 파괴되고 안으로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기에 리텍의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물질세

재생기술 개발의 길은 자연의 메커니즘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서

계로 환원되어 다시 사는 재생의 연속 메커니즘이 그 안에 숨쉬고 있다.

로 살수 있는 상생의 적극적 모색이라 할 수 있다.

## 기술개발 없이 환경보호도 없다

‘2020년 통일 한국의 수도 서울. 한·미간 폐기물 재활용 신기술 이전에 관한 국가간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기술로 운영되어 오던 오폐수 처리시설과 산업폐기물 재활용시설이 기술사용 기한이 만료되면서 재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기술 이전료를 요구하는 미국.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시설과 기술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미국대표 앞에서 사면초가인 한국. 한반도의 강과 들이 모두 쓰레기로 뒤덮일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 기술 개발을 뒤로만 미루어 왔던 환경기술 속국의 설움이 북받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계약서에 다시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물론 미래의 모습을 허구로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환경기술이 전무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것은 결코 허구만은 아닐 듯 하다. 사실 63년 폐기물관리법 발효이후 38년이 지난 우리나라 폐기물산업 중 이것이 한국 표준형 소각장이고 이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매립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고 하면 너무 절망적인 것일까. 이러한 불모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에 녹색의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인이 있다. 그가 바로 섬유폐기물을 이용, 2차 오염이 전무한 방법으로 자본재 신소재 개발에 성공한 리텍환경기술개발원의 한정광(49)사장이다.

버려진 쓰레기로 황금을 만드는 재생기술, 당당한 고유기술로 이젠 세계시장을 두드리는 리텍환경기술개발원. 아직 제대로 된 환경 기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리텍의 기술은 환경기술 불모지에 자라나는 녹색의 희망이다.





2차 오염이 전무한 친환경기술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리텍은 굴뚝없는 공장으로 녹색사회를 선도한다. 직접 작업복을 입고 생산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안정감 사장은 자신은 사원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회사에 사장이 될 사람을 모신다는 것이 그의 사람경영 철학이다.

## 변변한 기술도 없이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깨비 벤처는 가

### 버려진 쓰레기로 황금을 만드는 사나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9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48만여 톤의 합성섬유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 중 약 17% 정도만이 보온재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83%는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합성섬유 폐기물 소각의 경우 다이옥신의 발생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매립의 경우 또한 토양을 황폐화시킬 뿐이다. 리텍의 한정광 사장은 과거 11년 동안 오직 폐기물 재생기술의 연구개발에만 전념하여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한 결과 독보적인 고유기술인 목재류 대체 신소재 섬유판재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환경보전의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일거양득의 자본재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가 개발한 섬유판재는 방수성과 항균성이 뛰어나서 건축자재의 천장 소재·벽재·바닥재·도어류뿐만 아니라, 차량부품·산업자재·스포츠용품 등의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이 무궁무진 하다. 특히 목재자급률이 전체 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산림의 채벌을 규제하는 유엔환경계획에 따라 목재류의 대체 신소재 및 대용제품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서 그의 기술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의 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미국·호주·베트남 등 해외업체의 제품주문과 기술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21세기를 주도할 환경기술임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항상 준비하고 즉시 실행하며 바로 확인하는 일상

섬유관련 기업에 근무하면서 버려지는 폐섬유를 보고 재활용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94년 제9회 전국우수발명품경진대회 개인 금상 수상을 필두로 그동안 그와 리택이 받은 상장만도 손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보유 산업재산권도 20여 종에 이른다. 요즘 변변한 기술도 없이 정보통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증자 받고는 나 몰라라 하는 허깨비 벤처에 비하면 그 뿌리부터가 다르다. 이른바 '재생산업은 낭마주이 산업'이라는 사람들의 미천한 인식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된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 생산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는 재생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환경산업, 그 중에서도 재생산업은 한때의 유행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단명의 기술이 아닌 차세대의 첨단 미래산업의 정맥산업으로서 지금이야말로 세계적인 독보적 고기술개발을 통한 재생산업의 활성화를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집중한 재생기술사업의 육성과 다양한 기술정보의 교류가 절실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과 신뢰감이 넘치는 그에게 경영철학을 물어 보았다. 그의 경영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명쾌하다. 첫째 초지일관하는 기업인이 되는 것. 항상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으로 임하는 정신을 가져야 기술개발도 제품생산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둘째는 당당한 기술인이 되는 것. 특히 환경기술의 경우 독보적인 고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기술의 변형이나 모방에 지나지 않는 복제로는 세계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한다. 한때의 인기나 유행에 연연하는 기업은 결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는 신사적인 기업인이 되고자 한다. 신사정신이 없는 사람의 기술과 기업은 비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뿌리 약한 나무와 같이 주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마련이라고. 리택의 기술과 제품은 철저한 신사정신에 의해 개발되고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임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즉시 실행하며 바로 확인하는 일상'을 직원들에게나 스스로에게 강요한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와 어떠한 경쟁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으며, 장래에 다른 벤처기업을 혼자서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술만이 살길임을 강조하는 한정광사장. 그가 출원한 산업재산권만 해도 20건에 달한다.



리텍의 재생산업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구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연의 세계로 환원되는 자연의 메카니즘을 그대로 기술로 응용한 리텍은 자연사랑, 인간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21세기형 벤처기업이다.

### 다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

리텍의 당면과제는 우선 세계적인 환경친화형 신소재 섬유판재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 동안 개발해 온 값이 싸고 품질과 기능이 뛰어난 제품을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에서는 기술의 종자기업이 되고

#### 환경호르몬과 그 예방책

환경호르몬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생성·방출된 화학물질로,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996년 3월 미국에서 <잃어버린 미래(Our Stolen Future)>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각종 산업용 물질, 살충제, 농약, 유기중금속류, 다이옥신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에스트로겐류 등을 들 수 있다. 요즘에는 각종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플라스틱은 컵, 접시, 랩, 팩 등 폭넓게 쓰이고 있어 주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환경호르몬의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컵라면은 10분 이내에 먹는다
- 유리젓병으로 바꾼다. (플라스틱 젓병은 유독화합물 검출 위험)
-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 마시는 행위는 삼간다. (비스페놀 A 검출 위험)
- 전자렌지에서 유리덮개를 사용한다. (비닐 랩에는 벤젠류의 발암물질 검출)
- 커피캔 가열은 위험 (내부 코팅제에 비스페놀A 검출)
-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에 접근을 금한다.

해외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등지에 재생기술을 플랜트 수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외국의 환경기술을 수입만 하던 우리나라도 독보적 고유기술의 환경플랜트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국내 투자자와 해외자본의 투자유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자본유치가 완료되면 바로 공장설립과 양산시설을 갖추고 2001년 6월에 생산제품의 처녀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정광 사장은 확신한다.

리텍의 재생산업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어찌보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구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는 영원한 소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물질세계로 환원되어 다시 사는 재생의 연속 메커니즘이 그 안에 숨쉬고 있다. 인간의 삶은 파괴되고 안으로 병들기 시작한 것 한번 쓰면 다시 생활 속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불연속 소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터이다. 그러기에 리텍의 재생기술 개발의 길은 자연의 메커니즘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살 수 있는 상생의 적극적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자연에서 얻은 것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는 그는 사후 모든 장기를 사회에 기증함으로써 순수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국내투자자와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는 2001년 하반기부터는 제품의 출시가 가능하리라고 확신하는 한정광 사장.

### 찾아가는 길

수원에서 오산방향으로 43번 국도를 따라가다 오산 해병사령부 못미처 진흥아파트 앞에서 P턴

### 가볼만한 곳

용주사, 제부도, 궁평리 낙조, 제암리 순국 유적지, 안녕리 응봉 등



# 살아있는 박제로 남긴 30년 자연 사랑의 파노라마

1992년, 언론과 미디어는 마치 백두산 천지에 사는 호수괴물이 나타난 듯 범

살아있는 듯 생생한 현장감에 입에서는 연신 탄성이 터지고, 눈 앞에 펼쳐진 바

석을 떨고 있었다. 바다와 강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수입 수산물이

다 속 풍경이 우리 한반도의 바다 속이 맞는 것일까. 빛깔과 모양을 떠나서 그

판을 치는 한국에서 진귀한 물고기들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불거리를 넘어 충

생생한 움직임까지 복원해 놓은 것은 도대체 누구의 손길일까. 그 손길의 주인

격이었다. 전시된 어류들이 희귀하기도 했지만 그 사실적인 보존에 또 한번

공은 바로 30년 동안 어류박제 연구와 해양생물 보존에 일생을 바쳐온 공로로

경탄을 금치 못한 것이다. 화타가 살아 온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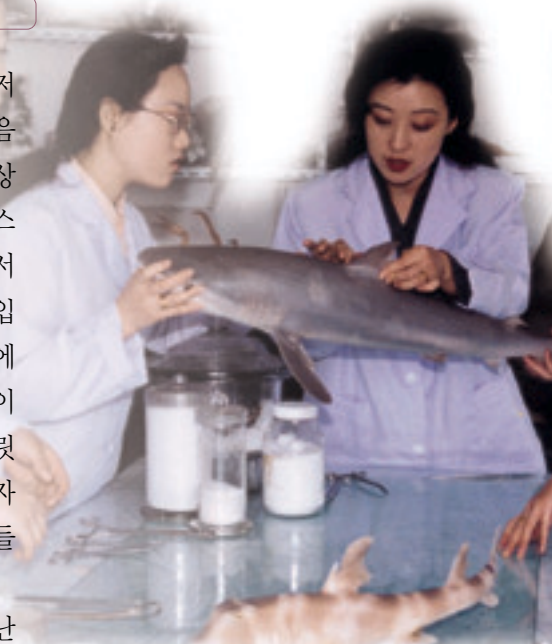
2000 경기 으뜸이예 선정된 한문교 한국해양동물연구소 소장이다.



## 우리를 바다 속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박제기술

바다 속 시간이 멈춰버린 것일까. 내가 바다에 빠져 버린 것일까. 해저에서 삼겹의 이빨을 번득이는 백상아리, 모래밭 위를 기어가다 잠시 걸음을 쉬는 듯한 바다거북, 몽툰한 주둥이에 철판을 잘라 두른 듯한 철갑상어. 밤뜰에 눈이 달린 듯 앙증맞은 가시복. 머리와 가슴만 있는 듯 익살스런 모양의 개복치. 손이 닿으면 금새라도 튀어 오를 듯 디오라마 안에서 숨을 멈춘 진귀한 물고기들. 살아있는 듯 생생한 모습에 관람객들의 입에서는 연신 탄성이 터지고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다 속 풍경에 매료되어 정말 이곳이 한반도의 바다 속이 맞는지, 이 곳에 물고기들이 정말 우리의 바다 속에 살고 있거나 하는 건지, 그래서 박람회와 팜플릿을 펴보니 ‘한국의 바다 물고기 특별전’이라는 글자에 관람객들은 갑자기 너무도 행복해진다. ‘아! 내가 이렇게 수려한 바다와 풍부한 물고기들이 사는 한국에 살고 있구나!’

1992년, 언론과 미디어는 마치 백두산 천지에 사는 호수괴물이 나타난 듯 범석을 떨고 있었다. 바다와 강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수입 수산물이 판을 치는 한국에서 진귀한 물고기들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넘어 충격이었다. 전시된 어류들이 희귀하기도 했지만 그 사실적인 보존에 또 한번 경탄을 금치 못한 것이다. 화타가 살아 온 것일까. 빛깔과 모양을 떠나서 그 생생한 움직임까지 복원해 놓은 것은 도대체 누구의 손길일까. 그 손의 주인공은 바로 30년 동안 어류박제 연구와 해양생물 보존에 일생을 바쳐온 공로로 2000 경기 으뜸이에 선정된 한문교(61) 한국 해양동물연구소 소장이다.



한문교 소장의 박제기술은 중국의 전문가도 넘죽 큰절을 할 만큼 그 수준이 세계적이다. 그의 박제품을 보면 바다 속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 듯한 착각에 빠진다.





## 자연으로 눈을 돌리니 내 앞에 다른 세계가 열렸다

전국의 바다와 강은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던 한문교 소장. 그는 오히려 바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충청북도 수안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마음먹은 일이라면 무섭게 빠져들던 한문교. 중학교 시절 카메라를 사기위해 몇 달 동안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고.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으로 기어코 카메라를 구입해서는 집에 암실까지 만들어 사진을 현상하던 당찬 아이가 바로 한문교였다. 그가 동물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생물선생님의 따끔한 가르침때문이었다. 운동이 좋아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던 그는 자연히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생물점수가 형편 없었다. 그러다 생물선생님에게 불려가 손이 부르도록 매를 맞았다. 집에 와서도 역시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은 뒤 그때부터 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주변에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유심히 관찰하고 잡아서는 해부도 해보고, 해부한 동물의 배속에 톱밥과 모래를 넣어 영성한 표본도 만들며 동물 연구의 세계에 깊숙히 빠져들게 되었다. 대학시절 사냥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냥한 조류들을 박제로 남기기 시작했다. 당시 박제한 조류들을 보며 우리나라 조류학계의 권위자 원병오 박사도 '최고의 조류 박제사'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만들었던 조류 박제는 모두 경희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 되어있다.



그 사실적인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전시회관객. 전시회를 가질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유리속에 갇힌 딱딱한 전시관이 어린 관객들과 함께 오모이는 전시회를 위해 디오라마라는 첨단 전시기법을 도입. 사실적 재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박제의 수준을 넘어 창조경지로

그의 관심이 물고기로 옮겨 간 것은 사냥이 금지되면서부터. 물고기에 흠뻑 빠져 버린 그는 거의 바닷가에서 살았다. 바닷가에 방을 잡고, 새벽부터 어부들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행여 비늘 하나 다칠세라 잡은 물고기를 스티로폴 상자에 고이 모으다가 몇 귀짝 씩 들고 작업실로 향했다. 그렇게 강과 바다로 물고기에 미쳐 돌아다닌 세월이 벌써 30년. 그동안 그는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겨야 했다. 무인도로 들어갔다가 복상하는 폭풍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여 해초와 바닷물로 목숨을 부지했던 기억. 잠수장비도 제대로 없었던 때에 허술한 장비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는 잠수복에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른채 물고기를 쫓다가 물귀신이 될 뻔했던 아찔한 일들. 그렇게 고생고생 모아온 어류박제 표본들이 3만여점. 그동안 각 대학 박물관에 기증한 조류, 곤충류 등의 표본까지 합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그가 어류박제를 평생의 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 주변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해양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다. 그가 평생 연구에 몰두하여 축적한 박제술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다. 1994년 중국의 수생물 연구 소장이 방한하여 그의 박제어류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큰절을 하며 박제를 넘어 '창조'의 경지라며 극찬을 하고 돌아 간 사실에서 박제기술의 수준을 기늠할 수 있다. 서구의 박제술이 쉽게 부서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가 개발한 특수 약품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주며, 견고하고 색상도 뛰어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그가 보유한 박제품은 거의 3만여점이 넘는 방대한 규모이다. 이제 사라져 버린 어종부터 근래에 보기 어려운 희귀동물까지 그의 소장품은 바로 우리나라 해양사를 보여주고 있다.





##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의 어류박제 연구에 전기를 마련해준 사람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국담수생물학연구소장인 최기철 박사이다. 최 박사가 소문을 듣고 가평작업실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되어 평생의 작품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최박사는 한 소장 박제품을 보고 한국의 어류박제기술을 20년이나 앞당겼다고 말하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감격스러워 했다고 한다. 최 박사의 도움으로 지금의 한국해양동물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재는 5명의 연구원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이다. 1992년 시작한 박람회 전국 지방 도시를 돌며 벌써 수십 차례 이어지고 있으며 관람객만도 수백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한 소장의 꿈은 우리 나라에 제대로 된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그는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자연사 박물관이 100여개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 하나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한다. 그가 꿈꾸는 해양박물관은 딱딱한 건물 안에 갇혀 있고 관람객과 소장품들을



제대로 된 박물관 하나 없는 초라한 우리 현실.  
한문교 소장은 관객과 함께 승려는 '살아있는 해양민속촌'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안과 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토는 3천1백89개의 섬을 지니고 있다. 이중 3천1백58개는 육지와 떨어져 있고, 35개 섬은 1996년 말 현재 육지와 연결된 연육도서다. 전체 도서 중에서 15.7%인 5백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이며, 나머지 84.3%인 2천6백89개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다. 우리나라 도서의 총면적은 5천3백77km<sup>2</sup>로서 순국토면적 9만9천3백94km<sup>2</sup>의 5.8%를 차지한다.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큰 도서는 제주도(1,845km<sup>2</sup>)이며 다음으로는 거제도(387.8km<sup>2</sup>), 진도(361.9km<sup>2</sup>), 강화도(302.4km<sup>2</sup>), 남해도(301.6km<sup>2</sup>), 안면도(113.5km<sup>2</sup>), 완도(90.2km<sup>2</sup>), 울릉도(73.2km<sup>2</sup>), 독산도(70.6km<sup>2</sup>), 거금도(62.1km<sup>2</sup>) 순으로 되어 있다. 면적 크기 순으로 1위(제주도)~50위(영도)까지의 도서는 면적이 13km<sup>2</sup> 이상이다. 50대 도서 중 60%인 30개가 전라남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16%인 8개)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약 3천2백개의 대·소 도서는 자원이 빈약한 현실에서 새로운 국토의 프린터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서지역은 수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수산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래 식량자원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근래에는 수산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산어업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은 연안어업의 핵심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서지역은 또한 해양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래 해양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의 시대를 맞아 수려하고 독특한 해양관광자원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서남해의 도서는 군집형태를 띠면서 경관이 아름다운 다도해(多島海)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 특히 환경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1994년부터 새로운 해양질서에 따라 연산주권의 영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서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그의 전시회에 가면 우리는 해양민족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로 대상화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몸소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남해·동해·서해에서 각기 잡히는 어종이 다르고, 사용하는 전통 어구와 부르는 민요, 풍어제 등이 모두 각양 각색이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고 다양한 해양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사람들과 함께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살아 있는 해양민속촌'을 꿈꾸는 사람이 한문교 소장이다.

한문교 소장 개인의 취미로 출발한 일들이 이렇게 한 나라의 해양문화를 풍족하게 하고, 나아가 해양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된 밑바탕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다. 그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한 소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될 일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해양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은 우리 민족이 해양민족으로 거듭나는 날이 될 것이다.

찾아가는 길

가평역에서 가평교  
방향 2km지점

가볼만한 곳

청평 수력 발전소, 가평 썰매장,  
유명산 자연휴양림,  
아침고요원예수목원 등